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Vol. 20, No. 6, 2009

주거공간의 실내디자인 특성에 대한 노인선호

Elderly Preference of Interior Design in Residential Space

이춘엽* 오찬옥**
Lee, Chun-Yeop Oh, Chan-Ohk

Abstract

As the needs of housing for the elderly has increased, many researches have been carried out and some housing projects for the elderly including nursing home began to be provided. Most researches have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housing type or space layout and only several ones on interior design. The interior design in house influences physically or psychologically on the elderly who lives in. Also, the subject of them which examined the needs or preference for housing for the elderly were the middle-aged, not the aged.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preferred characteristics of interior design in residential space by the elderly. The structured interview with 120 old persons who lived in Busan was carried out using by a questionnaire and 3D images. The elderly answered about the preferred interior style, color, lighting and interior finishes of each room in house, such as living room, master bedroom, kitchen, and bathroom.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the characteristics of interior design of each room in house which the elderly preferred were presented. In general, they preferred the mixed interior style with tradition and modern. Also, the reddish and purple interior color, flower or plant patterned wall finishes, and wood floor were preferred in living room and master bedroom by the elderly. The white interior color and one colored wall finishes without any pattern were preferred in kitchen and bathroom.

Keywords : Housing for the Elderly, Preference of the Elderly, Preferred Interior Design
주 요 어 : 노인주거, 노인선호, 실내디자인 선호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최근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노인을 고려한 주거공간의 계획지침 마련과 제공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노인주거와 관련된 많은 연구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소위 '실버타운'이라고 하는 비교적 건강한 노인을 위한 노인주거가 제공되기 시작하였으며, 치매나 중풍 같은 만성적인 노인질병 소유자를 위한 노인요양시설도 정부로부터의 혜택 등에 힘입어 활발하게 제공되고 있다.

주거공간의 실내디자인은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실내공간에서 보내는 노인에게 신체적 및 심리적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노인주거공간의 실내계획이 필요하다. 이에 주거공간의 실내 이미지, 색채, 마감재, 조명 등의 실내디자인 특성에 대한 실제 노인의 선호를 파악하는 것은 노인주거공간의 실내계획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노인주거와 관련하여 발표된 연구논문들은 주로 현재 노인주거의 공간구성특성을 분석한 연구, 노인주거인 유형 개발을 위하여 노인의식을 파악한 연구, 예비노인층인 중년층의 노인주거에 대한 선호나 요구를 파악한 연구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 연구들 대부분은 주거유형과 형태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거공간의 실내디자인 지침과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는 몇 편에 불과하다. 실제로 최근 15년간(1993-2008년) 노인주거공간 계획관련 논문들이 발표되는 대표적인 학회논문집[1]에 발표된 노인주택에 대한 선호나 요구를 조사한 논문 13편 중 실내분위기, 실내마감재, 실내색채 등과 같은 실내디자인 요소에 대한 선호나 요구를 파악한 연구는 3편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 10편은 실버타운, 노인공동주거,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주택 등과 같은 미래의 노인주거에 대한 의식과 선호하는 유형, 위치, 규모, 공간구성 등을 조사한 연구들이었다.

또한 사용자의 요구에 기초한 노인주거공간 계획의 중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 노인층을 대상으로 주거공간의 실내디자인 요소에 대한 선호를 조사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앞서 발표된 노인주택에 대한 선호나 요구에 관한 13편의 논문들 중 중년층이나 예비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가 9편, 60세 혹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

*정회원(주저자), 메드월병원 작업치료사
**정회원(교신저자), 인제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1) 한국주거학회논문집, 대한건축학회논문집,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된 연구가 4편으로 노인을 직접 대상으로 한 논문은 적었다. 즉 많은 선행연구들이 앞으로 제공될 노인주거의 실제 거주자가 될 중년층을 대상으로 노인주거에 대한 선호나 요구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노인주거공간의 계획방향과 지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인간은 실제 상황에 놓여보지 않고서는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마련이다. 실제로 노인이 되어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상력에 의한 선호는 실제 상황에서의 경우와 차이가 크다고 본다. 따라서 실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호파악은 보다 유용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며, 이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주거공간 각 실의 실내디자인 특성에 대한 노인의 선호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노인주택의 실내공간을 계획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실과 안방의 실내이미지, 주요 색채, 벽 마감재의 문양, 바닥 마감재의 종류, 조명방식에 대한 노인선호를 파악한다.

둘째, 부엌과 욕실의 유형, 주요 색채, 벽 마감재의 문양, 바닥 마감재의 종류에 대한 노인선호를 조사한다.

셋째, 이상의 조사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노인이 선호하는 실내디자인의 특성을 제시하고 향후 노인을 위한 주거공간의 실내디자인 방향을 제시한다.

II. 조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2] 120명이었다. 조사대상의 선정은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회원 100명 이상인 노인대학 또는 노인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 중에서 본 조사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노인들을 임의로 선정하였다. 부산지역은 전국 7대 도시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빠른 인구감소와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에는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전이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3] 또한 해운대구는 인구수가 시 전체의 11.8%[4]로 가장 많은 지역으로 2006년 대비 1.22% 증가하였으며 노인인구의 비중도 부산진구 다음으로 높은 지역이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인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일반특성과 주거특성, 노인주택의 기본공간인 침실과 욕실, 거실과 부엌의 실내디자인 특성에 대한 선호를 조사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실내디자인 특성으로는 실내이미지, 평면특성, 주요 색채, 벽 마감재의 문양, 바닥 마감재의 종류, 조명종류를 조사하였다.

조사내용 중 거실과 안방의 실내이미지, 부엌과 욕실의 유형, 각 실의 색채, 마감재 문양, 조명종류에 대한 노인들의 이해정도는 개인마다 다를 것으로 판단되어 이들에 대한 선호조사는 시각적으로 표현된 이미지나 스캔받은 이미지, 또는 평면을 작성하여 각 질문에 해당하는 항목을 210×297 mm 크기의 보드 한 면에 부착하여 보조설명 도구로 사용하였으며, 이에 설문지 외 모두 11장의 보조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거실과 안방의 실내이미지

본 연구에서는 노인이 선호하는 거실과 안방의 실내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거실과 안방의 실내이미지 유형을 전통적 이미지, 전통과 현대가 혼합된 이미지, 현대적 이미지로 구분하고 이를 <그림 1, 2>와 같이 3D 이미지로 표현하여 조사도구로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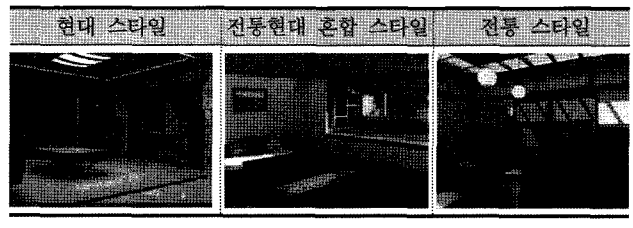

그림 1. 거실의 실내이미지

그림 2. 안방의 실내이미지

거실과 안방의 실내이미지는 바닥, 벽, 천장의 마감재 종류와 패턴, 가구의 종류와 형태 및 마감재, 색채, 조명 등을 각 스타일에 맞게 작성하였다. 즉, 전통적 이미지는 한국적인 전통이 반영된 이미지로 "실내이미지 판별도구"[5]를 토대로 대체로 품위있고, 검소하고, 온화하고, 정갈하고, 절제되고, 고풍스럽고, 운치있고, 자연적이고, 은은하고, 담백하고, 격조있는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하였다. 마감재는 자연소재를 이용한 나무나 한지를 주로 적용하였고, 이중 바닥재는 전통장판 혹은 쪽마루를 깔았으며, 벽과 천장에는 전통의 격자문양과 한지를 사용하였다. 색채는 자

2)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보고 있으나 본 연구는 앞으로의 주거공간 실내디자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연구이므로 노인의 범위를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보고 접근하였다.
3) 김수남, 박영호, 최창환(2005), 부산시 인구고령화의 공간적 분포와 특성, 한국도시행정학회논문집, 18(3), 30-31
4) 2007년 부산시 주민등록인구통계
5) 연세대학교 이연숙교수연구실(1997), 실내이미지 선호판별도구, 기문당, 102

연과 잘 어울리고 보편적이며 온화한 계통의 색을 주조로 하였고, 조명은 소재의 통일감을 위하여 한지 조명을 선택하였다.

전통과 현대가 혼합된 이미지는 형태적으로는 서구적인 실내공간이지만 그 안에서 한국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이미지[6]로, "실내이미지 판별도구"[7]를 토대로 단순하고, 세련되고, 간결하고, 추상미가 있고, 공간감이 있고, 개방적이고,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하였다. 바닥은 원목마루나 전통장판을 깔고 벽과 천장은 무지벽지나 페인트 마감을 하였다. 가구는 거실은 소파 대신 긴 방석을 사용하고, 안방에서는 전통적 스타일의 침대를 사용하였다. 색채는 크림색이나 모노톤의 화이트색을 주조색으로 하고 가구 등에서 자연과 어울리는 색을 적용하였다.

현대적 스타일은 서양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동양에서는 20세기 중반 이후의 국제화 양식이 보편화된 시기의 모던이나 포스트모던 양식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단순하고, 세련되고, 간결하고, 이지적인 분위기[8]를 연출하고자 하였다. 바닥은 대리석, 마모륨, 모노륨 등이 사용되었고, 벽은 벽지나 페인트 마감 등으로 깨끗한 공간을 연출하였다. 가구는 거실에서는 소파를, 안방에서는 침대를 적용하였고, 패브릭은 매트한 느낌의 면소재를 사용하였다. 색채는 모노톤의 화이트나 크림색, 또는 무채색 등을 적용하고 명암대비의 효과가 강한 배색을 사용하였다. 조명은 심플한 디자인의 천정등을 선택하였다.

이와 같은 이미지 작성은 실내디자인을 전공하는 교수와 대학원생 및 학부생들의 논의를 거쳐 진행하여 내용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2) 부엌과 욕실의 유형

부엌의 경우는 작업대의 배치형태가 중요한 실내디자인 요소로 작용하므로 일자형, ㄱ자형, ㄷ자형, 병렬형의 4가지 배치형태를 <그림 3>과 같이 평면도로 작성하여 시각적인 보조설명도구로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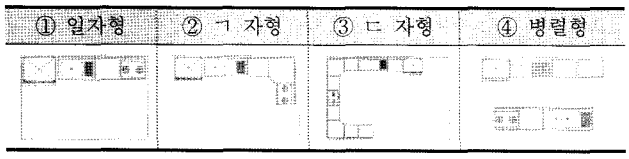

그림 3. 부엌 작업대의 배치형태

욕실의 경우는 세면대와 변기 및 욕조와 샤워부스의 구성형태를 샤워기만 있는 유형, 욕조와 샤워기만 있는 유형, 샤워부스와 샤워기만 있는 유형, 욕조와 샤워부스가 모두 있는 유형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그림 4>와 같이 평면도로 작성하여 시각적인 보조설명도구로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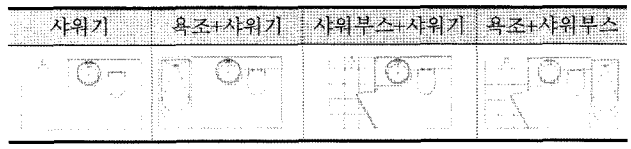

그림 4. 욕실의 구성유형

3) 색채

각 실의 선호색채 파악을 위한 색표는 전은정과 조성희(2006)[9]가 먼셀 색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 사용한 조사도구를 그대로 사용하였다<그림 5>. 즉 색표는 IRI 디자인 연구소에서 먼셀 색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개발한 색채분석도구인 「IRI Hue & Tone 120 System」[10]을 사용하였고, 색표의 구성은 먼셀의 기본 10색상을 사용하였으며, 제시된 색상은 Strong톤(S)을 이용하고 여기에 무채색 2개(N9.5, N5)를 추가하여 최종 12색으로 하였다. 또한 건축색채가 가지는 고명저채도 특성을 고려하여 Very pale톤(Vp)으로 구성하였다. 결과물의 출력은 hp deskjet 990cxi를 이용하였으며, 잉크젯 전용지를 사용하였다. 색표의 크기는 설문문항구성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색채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인 20×20 mm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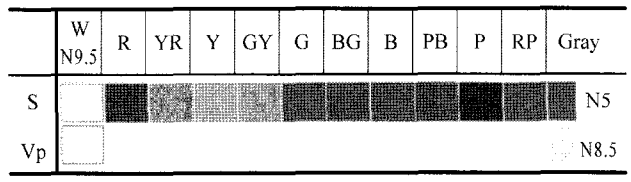

그림 5. 색상

4) 마감재의 문양

마감재의 문양은 줄무늬, 꽃/식물, 기하학무늬, 한국전통무늬, 추상적 무늬, 무늬없는 단색의 6가지[11]로 분류하였으며, 인터넷과 잡지를 통해 수집한 자료 중 대표적인 것이라 판단되는 것을 스캔받아 단지 패턴만을 인지하도록 <그림 6>과 같이 흑백으로 작성하여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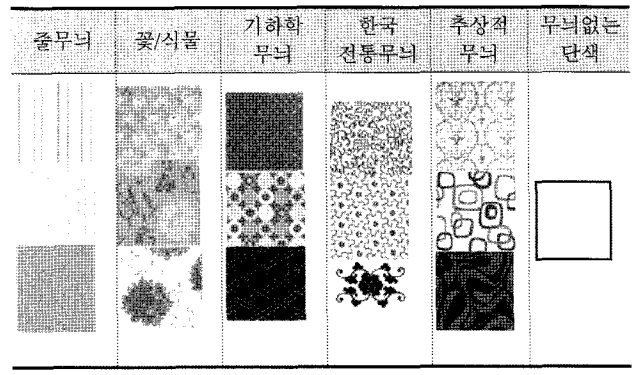

그림 6. 마감재의 문양

6) 이숙향(1999), 고양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거주자의 실내디자인 선호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6-7
7) 연세대학교 이연숙 교수 연구실(1997), 전게서, 102
8) 연세대학교 이연숙 교수 연구실(1997), 상게서, 103
9) 전은정, 조성희(2006), 노인수요계층의 아파트 실내 색채계획을 위한 색채선호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5(6), 223
10) I.R.I.컬러시스템, http://www.iricolor.com

5) 조명의 종류

조명은 거실과 안방 각각에 사용가능한 조명의 종류와 위치가 조명사진과 함께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여 사용하였다<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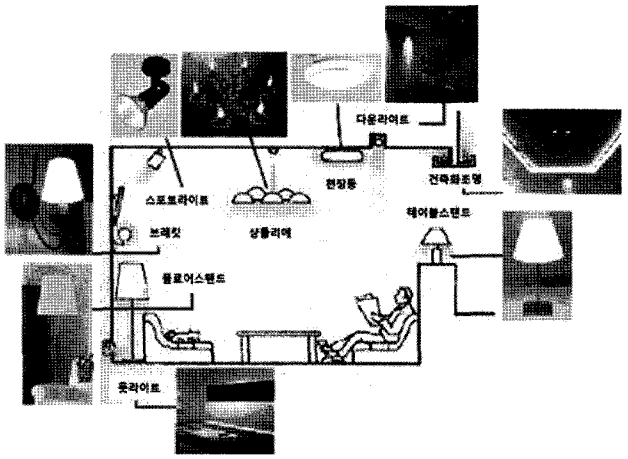

그림 7. 거실 조명의 종류와 이미지

3. 조사방법

본 조사는 조사대상자가 노인임을 고려하여 면접조사를 위해 훈련받은 실내디자인 전공학생 5인이 설문지를 이용한 일대일 면접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는 2008년 4월 19일부터 5월 18일까지 진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ver.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퍼센트, 평균, 교차분석(crosstabs)을 하였다.

III. 조사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여자노인이 77.5%, 남자노인이 22.5%로 여자노인이 많았다<표 1>.

표 1. 조사대상 노인의 일반특성

특성	구 분	f (%)	특성	구 분	f (%)
성별	남	27(22.5)	학력	무학	12(10.0)
	여	93(77.5)		초등학교 졸업	30(25.0)
	계	120(100)		중학교 졸업	35(29.2)
연령	60~64세	33(27.5)		고등학교 졸업	35(29.2)
	65~69세	33(27.5)		대학졸업 이상	8(6.7)
	70~74세	34(28.3)		계	120(100)
	75세 이상	20(16.6)	월수입	100만원 미만	36(30.0)
	계	120(100)		100~200만원	40(33.3)
가족구성	노인단독가구	28(23.3)		200~300만원	22(18.3)
	노인부부가구	53(44.2)		300만원 이상	12(10.1)
	확대가족	39(32.5)		계	110(91.7)
	계	120(100)			

11) 홍이경, 오혜경(2005), 예비노인층의 공동생활주택 실내마감재 및 색채에 대한 선호,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4(5), 169

이들의 연령은 70대 초반이 28.3%, 60대 초반과 중반이 27.5%씩이었으며 75세 이상이 16.6%로 거의가 60대와 70대였다. 가족구성은 노인부부만으로 구성된 노인부부가구가 44.2%, 확대가족이 32.5%, 노인 혼자 사는 노인단독가구가 23.3%로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가 67.5%였다. 학력은 중졸과 고졸이 29.2%씩이었고 초졸이 25.0%였으며, 월수입은 100-200만원 미만이 33.3%, 100만원 미만이 30.0%, 200-200만원 미만이 18.3%의 순으로 비교적 학력이 높고 경제력도 어느 정도 있는 노인들이 표집되었다.

조사대상 노인들은 60.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30.8%는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80.6%가 고층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표 2>. 주택평수는 30평대가 40.8%와 20평대가 37.5%로 많았으며 90.0%가 자기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표 2. 조사대상 노인의 주거특성

특성	구 분	f (%)	특성	구 분	f (%)
주거유형	단독주택	37(30.8)	주택규모	10~19평	7(5.8)
	연립주택	11(9.2)		20~29평	45(37.5)
	아파트	72(60.0)		30~39평	49(40.8)
	계	120(100)		40평 이상	19(15.9)
아파트유형	저층아파트	13(18.1)		계	120(100)
	고층아파트	58(80.6)	소유형태	자가	108(90.0)
	주상복합	1(1.4)		임대	12(10.0)
	계	72(100)		계	120(100)

2. 노인이 선호하는 실내디자인 특성

노인이 선호하는 실내디자인 특성을 거실, 안방, 부엌, 욕실별로 파악하였으며, 거실과 안방의 실내이미지, 부엌의 거실 및 식당과의 연결형태에 대한 선호는 노인특성(노인의 성별, 연령, 가족구성, 월수입, 주택유형, 주택평수)별로 교차분석을 하여 노인특성별 분포특성과 전체 분포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1) 거실의 실내디자인 특성에 대한 노인선호

(1) 거실의 실내 이미지

거실의 실내이미지에 대하여 전통과 현대가 혼합된 스타일을 49.2%의 노인들이 선호하였고, 현대스타일은34.2%의 노인들이 선호하였다<표 3>. 이러한 결과는 노인공간은 전통적 이미지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획할 경우 많은 노인들의 생각과는 다른 스타일의 거실을 제공해 줄 수 있음을 암시해 주는 결과이다. 즉 노인주거공간의 경우 전통적 특성이 약간 가미된 현대적 이미지의 거실이 적합함을 말해준다.

표 3. 거실의 실내이미지에 대한 노인선호

거실의 실내이미지	f(%)
현대스타일	41(34.2)
전통현대 혼합스타일	59(49.2)
전통스타일	20(16.7)
계	120(100.0)

이러한 거실의 실내이미지에 대한 노인선호가 노인의 성별, 연령, 가족구성, 월수입, 주택유형, 주택평수에 따라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교차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노인의 성별에 따른 거실의 실내이미지에 대한 선호분포는 노인 전체의 선호분포와 거의 차이가 없이 동일하였고, 연령별 선호분포는 60대 초반의 노인이 현대스타일의 거실을 선호하는 성향과 70대 초반의 노인이 혼합스타일의 거실을 선호하는 성향이 전체 선호성향보다 높았다. 가족구성에 따른 선호분포는 노인단독가구의 노인이 현대스타일의 거실을 선호하는 성향이 전체의 경우보다 약간 높았으며, 월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노인은 현대스타일과 전통스타일의 거실에 대한 선호가, 200만원 이상인 노인이 다른 노인에 비하여 전통과 현대 혼합 스타일의 거실에 대한 선호가 전체 성향보다 높았다. 또한 단독주택 거주 노인이 공동주택 거주노인에 비하여 현대스타일의 거실에 대한 선호는 낮은 반면 전통과 현대 혼합스타일에 대한 선호는 높았으며, 주택규모가 20평대인 경우 전통스타일의 거실에 대한 선호는 낮은 반면 전통과 현대 혼합스타일에 대한 선호는 높았고, 30평대인 노인은 전체 성향에 비하여 혼합스타일의 거실에 대한 선호는 낮은 반면 전통스타일의 거실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표 4. 노인특성별 거실 실내이미지에 대한 선호

노인특성	구분	현대스타일 f(%)	전통현대혼합 f(%)	전통스타일 f(%)	계 f(%)
성별	남	9(33.3)	14(51.9)	4(14.8)	27(100)
	여	32(34.4)	45(48.4)	16(17.2)	93(100)
	계	41(34.2)	59(49.2)	20(16.7)	120(100)
연령	60~64세	**13(39.4)**	14(42.4)	6(18.2)	33(100)
	65~69세	12(36.4)	17(51.5)	4(12.1)	33(100)
	70~74세	9(26.5)	**19(55.9)**	6(17.6)	34(100)
	75세 이상	7(35.0)	9(45.0)	4(20.0)	20(100)
	계	41(34.2)	59(49.2)	20(16.7)	120(100)
가족구성	노인단독가구	**12(42.9)**	13(46.4)	3(10.7)	28(100)
	노인부부가구	16(30.2)	28(52.8)	9(17.0)	53(100)
	확대가족	13(33.3)	18(46.2)	8(20.5)	39(100)
	계	41(34.2)	59(49.2)	20(16.7)	120(100)
월수입	100만원 미만	**14(38.9)**	14(38.9)	**8(22.2)**	36(100)
	100~200만원	14(35.0)	20(50.0)	6(15.0)	40(100)
	200만원 이상	9(26.5)	**20(58.8)**	5(14.7)	34(100)
	계	37(33.6))	54(49.1)	19(17.3)	110(100)
주택유형	단독주택	9(24.3)	**22(59.5)**	6(16.2)	37(100)
	공동주택	32(38.6)	37(44.6)	14(16.9)	83(100)
	계	41(34.2)	59(49.2)	20(16.7)	120(100)
주택평수	10~29평	17(32.7)	**29(55.8)**	6(11.5)	52(100)
	30~39평	17(34.7)	21(42.9)	**11(22.4)**	49(100)
	40평 이상	7(36.8)	9(47.4)	3(15.8)	19(100)
	계	41(34.2)	59(49.2)	20(16.7)	120(100)

(2) 거실의 주요 색채

노인이 선호하는 거실의 주요 색채는 R이 31.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RP가 13.3%, P가 11.7%의 순이었다 <표 5>. 이러한 결과는 60세 이상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을 경우 44.3%가 붉은 계열(R 29.5%, RP 14.8%)의 거실 색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12]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50대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44.6%가 노란 계열(YR 22.5%, Y 22.1%)의 거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13] 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는 50대와 60대 이상 노인과의 실내공간 선호 색채가 다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5. 거실의 색채에 대한 노인선호 (N=120)

색	W	R	YR	Y	GY	G	BG	B	PB	P	RP	Gray
f	10	38	4	3	3	2	4	4	11	14	16	11
%	8.3	31.7	3.3	2.5	2.5	1.7	3.3	3.3	9.2	11.7	13.3	9.2

(3) 거실의 벽과 바닥 마감재

거실 벽의 마감재 문양으로 노인들은 꽃/식물을 29.2%가, 줄무늬를 25.8%가 선호하였고 한국전통무늬는 18.3%가 선호하였다<표 6>. 거실 바닥 마감재료는 68.3%의 노인이 나무마루를 선호하였고 25.8%가 합성수지류(장판)를 선호하였다.

표 6. 거실의 벽과 바닥 마감재에 대한 노인선호

거실 마감재	구분	f(%)
벽 마감재 문양	줄무늬	31(25.8)
	꽃/식물	35(29.2)
	기하학무늬	7(5.8)
	한국전통무늬	22(18.3)
	추상적무늬	11(9.2)
	무늬없는 단색	14(11.7)
	계	120(100.0)
바닥 마감재 종류	합성수지류(장판)	31(25.8)
	나무(원목)마루	82(68.3)
	대리석	3(2.5)
	기타	4(3.3)
	계	120(100.0)

(4) 거실의 조명

노인이 선호하는 거실의 조명은 상들리에(65.8%), 천정등(44.2%), 브래킷(43.4%), 건축화 조명(43.4%), 다운라이트(40.8%)의 순이었다<표 7>. 즉 많은 노인들이 거실조명으로 상들리에를 선호하였고 천정등, 브래킷, 건축화 조명, 다운라이트에 대한 선호도 비슷하게 높아 거실 조명에 대한 선호는 다양하였다. 따라서 거실 조명은 노인의

12) 전은정, 조성희(2006), 전게서, 227
13) 홍이경, 오혜경(2005), 전게서, 173

표 7. 거실의 조명방식에 대한 노인선호

조명	f(%)*
샹들리에	79(65.8)
천정등	53(44.2)
브래킷	52(43.4)
건축화조명	52(43.4)
다운라이트	39(40.8)
플로어 스탠드	35(29.2)
테이블 스탠드	20(16.7)
풋라이트	13(10.8)
스포트라이트	7(5.9)
계	360(300)

*중복응답한 결과임.

선호가 다양함을 반영하여 노인으로 하여금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2) 안방의 실내디자인 특성에 대한 노인선호

(1) 안방의 실내 이미지

안방의 전반적인 실내 이미지에 대하여 전통과 현대가 혼합된 스타일을 선호하는 노인이 41.7%로 가장 많았으나 현대스타일을 선호하는 노인과 전통스타일을 선호하는 노인도 각각 29.2%가 되어 안방의 분위기에 대한 노인의 선호는 다양하였다<표 8>.

표 8. 안방의 실내이미지에 대한 노인선호

안방의 실내이미지	f(%)
현대스타일	35(29.2)
전통현대 혼합스타일	50(41.7)
전통스타일	35(29.2)
계	120(100.0)

이러한 안방의 실내이미지에 대한 노인선호를 노인특성별로 교차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노인의 성별에 따른 분포의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연령이 60대 후반이거나 70대 후반인 노인과 월수입이 100-200만원인 노인, 단독주택 거주노인, 40평 이상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은 현대스타일의 안방을 선호하는 성향이 전체 성향보다 높았다. 반면, 연령이 70대 초반인 노인, 노인부부가구의 노인, 월수입이 200만원 이상인 노인, 40평 이상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은 전통과 현대가 혼합된 스타일의 안방을 선호하는 성향이 전체 성향보다 높았다. 또한 연령이 70대 후반 이상인 노인과 확대가족의 노인은 전통스타일의 안방을 선호하는 성향이 전체 성향보다 높았다.

(2) 안방의 주요 색채

안방의 색채에 대하여 노인들은 R을 25.0%의 노인이, RP를 20.0%의 노인이 선호하였고, PB는 15.0%, P는 12.5%의 노인이 선호하였다<표 10>. 즉 많은 노인들은 붉은 색 계열이나 보라색 계열로 계획된 안방을 선호하였다.

표 9. 노인특성별 안방 실내이미지에 대한 선호

노인특성	구분	현대 스타일	전통현대 혼합	전통 스타일	계
		f(%)	f(%)	f(%)	f(%)
성별	남	9(33.3)	10(37.0)	8(29.6)	27(100)
	여	26(28.0)	40(43.0)	27(29.0)	93(100)
	계	35(29.2)	50(41.7)	35(29.2)	120(100)
연령	60~64세	9(27.3)	14(42.4)	10(30.3)	33(100)
	65~69세	**13(39.4)**	13(39.4)	7(21.2)	33(100)
	70~74세	6(17.6)	**19(55.9)**	9(26.5)	34(100)
	75세 이상	**7(35.0)**	4(20.0)	**9(45.0)**	20(100)
	계	35(29.2)	50(41.7)	35(29.2)	120(100)
가족구성	노인단독가구	9(32.1)	13(46.4)	6(21.4)	28(100)
	노인부부가구	16(30.2)	**25(47.2)**	12(22.6)	53(100)
	확대가족	10(25.6)	12(30.8)	**17(43.6)**	39(100)
	계	35(29.2)	50(41.7)	35(29.2)	120(100)
월수입	100만원 미만	8(22.2)	17(47.2)	11(30.6)	36(100)
	100~200만원	13(32.5)	14(35.0)	13(32.5)	40(100)
	200만원 이상	9(26.5)	**17(50.0)**	8(23.5)	34(100)
	계	30(27.3)	48(43.6)	32(29.1)	110(100)
주택유형	단독주택	**14(37.8)**	13(35.1)	10(27.0)	37(100)
	공동주택	21(25.3)	37(44.6)	25(30.1)	83(100)
	계	35(29.2)	50(41.7)	35(29.2)	120(100)
주택평수	10~29평	14(26.9)	22(42.3)	16(30.8)	52(100)
	30~39평	14(28.6)	19(38.8)	16(32.7)	49(100)
	40평 이상	**7(36.8)**	**9(47.4)**	3(15.8)	19(100)
	계	35(29.2)	50(41.7)	35(29.2)	120(100)

표 10. 안방의 실내색채에 대한 노인선호 (N=120)

색	W	R	YR	Y	GY	G	BG	B	PB	P	RP	Gray
f	11	30	5	3	2	3	1	2	18	15	24	6
%	9.2	25.0	4.2	2.5	1.7	2.5	0.8	1.7	15.0	12.5	20.0	5.0

(3) 안방 벽과 바닥의 마감재 문양과 종류

노인들은 안방 벽의 마감재 문양으로 꽃/식물은 30.8%, 줄무늬는 24.2%의 노인이 선호하였고 무늬없는 단색도 15.8%가 선호하여 다양한 선호성향을 보였다<표 11>.

표 11. 안방의 벽과 바닥마감재 문양과 종류에 대한 노인선호

안방 마감재	구분	f(%)
벽 마감재의 문양	줄무늬	29(24.2)
	꽃/식물	37(30.8)
	기하학무늬	13(10.8)
	한국전통무늬	12(10.0)
	추상적무늬	10(8.3)
	무늬없는 단색	19(15.8)
	계	120(100.0)
바닥 마감재의 종류	합성수지류(장판)	54(45.0)
	나무(원목)마루	63(52.5)
	대리석	0(0)
	기타	3(2.5)
	계	120(100,0)

또한 안방 바닥의 마감재로는 52.5%의 노인이 나무마루를, 45.0%가 합성수지류(장판)를 선호하였다. 안방 바닥 마감재로 장판보다 나무마루를 더 선호한 것은 안방에서의 침대사용 등 입식생활로 인한 결과로 본다.

(4) 안방의 조명

노인이 선호하는 안방의 조명은 천장등(56.7%), 테이블 스탠드(52.4%), 플로어 스탠드(46.7%), 브래킷(43.3%) 순으로 다양하였다<표 12>.

표 12. 안방의 조명방식에 대한 노인선호

조명	f(%)*
천정등	68(56.7)
테이블 스탠드	43(52.4)
플로어 스탠드	56(46.7)
브래킷	52(43.3)
다운라이트	41(34.1)
건축화조명	39(32.5)
샹들리에	23(19.2)
풋라이트	11(9.2)
스포트라이트	6(5.0)
계	360(300)

*중복응답한 결과임.

3) 부엌의 실내디자인 특성에 대한 노인선호

(1) 부엌의 거실 및 식당과의 연결형태

부엌의 거실 및 식당과의 연결형태에 대한 노인선호를 조사한 결과, 55.8%의 노인이 부엌이 거실 및 식당과 통합되어 있는 형태를 선호하였으며, 18.3%는 DK형을, 16.7%는 분리형을 선호하였다<표 13>. 이러한 결과는 50대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식당과 부엌의 통합형(L/DK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14]와 다소 차이를 보여, 50대와 60대 이상의 노인 간에 선호가 다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50대 연령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60대 이상의 노인을 위한 주거공간에 그대로 적용하는데 주의를 요함을 암시해 주는 결과이다.

부엌, 식당, 거실이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되어 있는 형태는 동선의 단축과 함께 시각적인 개방감과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접촉을 용이하게 해주므로 특히 노인에게는 바람직한 형태라고 본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행동이 느려지고 활동반경이 좁아지므로 각 용도의 공간을 분리시키기보다는 통합시킴으로써 동선을 줄여 효율성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시각적으로 넓어 보이게 하며, 다른 공간에서 다른 행동을 하는 가족구성원들간에도 이야기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서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때문이다.

표 13. 부엌의 거실 및 식당과의 연결형태에 대한 노인선호

부엌의 거실 및 식당과의 연결형태	f(%)
거실, 식당, 부엌 통합형 (LDK형)	67(55.8)
거실, 식당 통합형 (LD/K형)	11(9.2)
식당, 부엌 통합형 (L/DK형)	22(18.3)
거실, 식당, 부엌 분리형(L/D/K형)	20(16.7)
계	120(100.0)

14) 홍이경(2003), 한국형 노인공동생활주택의 실내디자인 선호경향과 지침연구, 경희대 박사논문, 99

이러한 부엌의 거실 및 식당과의 연결형태에 대한 노인선호를 노인특성별로 교차분석하여 전체 성향과 비교하여 보았다<표 14>.

표 14. 노인특성별 부엌의 거실 및 식당과의 연결형태 선호

특성	구분	LDK형 f(%)	LD/K형 f(%)	L/DK형 f(%)	L/D/K형 f(%)	전체 f(%)
성별	남	13(48.1)	3(11.1)	6(22.2)	5(18.5)	27(100)
	여	54(58.1)	8(8.6)	16(17.2)	15(16.1)	93(100)
	계	67(55.8)	11(9.2)	22(18.3)	20(16.7)	120(100)
연령	60~64세	16(48.5)	3(9.1)	5(15.2)	**9(27.3)**	33(100)
	65~69세	19(57.6)	4(12.1)	6(18.2)	4(12.1)	33(100)
	70~74세	**24(70.6)**	2(5.9)	3(8.8)	5(14.7)	34(100)
	75세 이상	8(40.0)	2(10.0)	**8(40.0)**	2(10.0)	20(100)
	계	67(55.8)	11(9.2)	22(18.3)	20(16.7)	120(100)
가족구성	노인단독가구	**18(64.3)**	**4(14.3)**	2(7.1)	4(14.3)	28(100)
	노인부부가구	27(50.9)	3(5.7)	**14(26.4)**	9(17.0)	53(100)
	확대가족	22(56.4)	4(10.3)	6(15.4)	7(17.9)	39(100)
	계	67(55.8)	11(9.2)	22(18.3)	20(16.7)	120(100)
월수입	100만원 미만	**26(72.2)**	4(11.1)	2(5.6)	4(11.1)	36(100)
	100~200만원	25(62.5)	4(10.0)	8(20.0)	3(7.5)	40(100)
	200만원 이상	11(32.4)	3(8.8)	**9(26.5)**	**11(32.4)**	34(100)
	계	62(56.4)	11(10.0)	19(17.3)	18(16.4)	110(100)
유형	단독주택	17(45.9)	5(13.5)	**11(29.7)**	4(10.8)	37(100)
	공동주택	50(60.2)	6(7.2)	11(13.3)	16(19.3)	83(100)
	계	67(55.8)	11(9.2)	22(18.3)	20(16.7)	120(100)
주택평수	10~29평	30(57.7)	5(9.6)	6(11.5)	**11(21.2)**	52(100)
	30~39평	30(61.2)	3(6.1)	10(20.4)	6(12.2)	49(100)
	40평 이상	7(36.8)	3(15.8)	**6(31.6)**	3(15.8)	19(100)
	계	67(55.8)	11(9.2)	22(18.3)	20(16.7)	120(100)

노인의 성별에 따른 선호의 분포특성은 전체 성향과 유사하였다. 그러나 연령이 70대 초반인 노인, 혼자 사는 노인단독가구의 노인, 월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노인은 LDK형을 선호하는 성향을 보였고, 노인단독가구의 노인은 LD형을 선호하는 성향도 있었다. 또한 연령이 70대 후반인 노인, 노인부부가구의 노인, 월수입이 200만원 이상인 노인, 단독주택 거주 노인, 40평 이상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은 DK형을 선호하는 성향을 보였고, 연령이 60대 초반인 노인과 월수입이 200만원 이상인 노인, 20평대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은 독립형을 선호하는 성향을 보였다.

(2) 부엌 작업대의 배치형태

부엌 작업대의 배치형태에 대한 노인선호는 36.7%가 ㄱ자형을, 25.0%가 병렬형을, 20.0%가 ㄷ자형을, 18.3%가 일자형을 선호하였다<표 15>. ㄱ자형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성향은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15] 결

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ㄱ자형 외의 다른 형태에 대한 선호비율이 큰 차이가 없음을 볼 때 부엌형태와 크기에 따라 적합한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ㄱ자형 배치형태는 공간이용 측면과 작업자 측면 모두에서 가장 효율적인 배치형태이므로 특히 신체적으로 약화되어 가고 있는 노인에게 적절한 배치형태라고 보며, 따라서 배치형태 결정시 최우선적인 배치형태로 배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표 15. 부엌의 작업대 배치형태에 대한 노인선호

부엌 작업대의 배치형태	f(%)
일자형	22(18.3)
자형	44(36.7)
자형	24(20.0)
병렬형	30(25.0)
계	120(100.0)

(3) 부엌의 주요 색채

노인들이 선호하는 부엌의 주요 색채는 W(25.8%), RP(16.7%), R(10.8%), PB(10.0%)의 순이었다<표 16>. 즉 노인이 선호하는 부엌의 전반적인 색채는 깨끗한 흰색 또는 식욕을 생기게 해주는 붉은 색계열이나 보라색계열이었다.

표 16. 부엌의 실내색채에 대한 노인선호 (N=120)

색	W	R	YR	Y	GY	G	BG	B	PB	P	RP	Gray
f	31	13	5	3	8	7	3	0	12	7	20	11
%	25.8	10.8	4.2	2.5	6.7	5.8	2.5	0	10.0	5.8	16.7	9.2

(4) 부엌 벽과 바닥 마감재의 문양과 종류

부엌의 벽 마감재 문양으로 25.8%의 노인은 무늬없는 단색을, 24.2%는 줄무늬를 선호하였다<표 17>.

표 17. 부엌의 벽과 바닥 마감재에 대한 노인선호

부엌 마감재	구분	f(%)
벽 마감재 문양	줄무늬	29(24.2)
	꽃/식물	18(15.0)
	기하학무늬	20(16.7)
	한국전통무늬	11(9.2)
	추상적무늬	11(9.2)
	무늬없는 단색	31(25.8)
	계	120(100.0)
바닥 마감재 종류	합성수지류(장판)	30(25.0)
	나무(원목)마루	72(60.0)
	대리석	18(15.0)
	기타	0(0)
	계	120(100.0)

15) 김남효(2003), 주택주방의 리모델링 선호요인 및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38호, p. 252, 20대부터 50대까지의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ㄱ자형에 대한 선호가 33.0%로 가장 높았다.

바닥 마감재로는 60.0%가 나무마루를 선호하였고 25.0%가 합성수지류를 선호하였다.

4) 욕실의 실내디자인 특성에 대한 노인선호

(1) 욕실구성

욕실의 구성에 대한 노인선호를 보면 노인들은 욕조와 샤워부스가 모두 마련되어 있는 유형을 63.3%의 노인이 선호하였으며, 다음은 샤워부스는 없고 욕조와 샤워기만 있는 유형을 16.7%의 노인이, 욕조는 없고 샤워부스와 샤워기만 있는 유형을 11.7%의 노인이 선호하였다<표 18>.

표 18. 욕실구성에 대한 노인선호

욕실 구성	f(%)
샤워기만 있는 유형	10(8.3)
욕조와 샤워기만 있는 유형	20(16.7)
샤워부스와 샤워기만 있는 유형	14(11.7)
욕조와 샤워부스 모두 있는 유형	76(63.3)
계	120(100.0)

이러한 결과는 특히 60대 이상의 노인들에게 우리나라의 입욕식 목욕문화가 깊게 자리하고 있어 욕조가 있는 욕실을 선호하는 것이며, 여기에 최근 들어 샤워를 하는 목욕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샤워부스를 선호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는 50대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홍이경의 선행연구[16] 결과에서 샤워부스는 없고 욕조만 있는 유형을 가장 선호하는 것(69.4%)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본 선행연구에서는 욕조와 샤워부스가 모두 마련되어 있는 유형의 항목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욕실의 경우 욕조와 샤워부스 모두를 갖추어 주되, 샤워부스에는 붙박이식이나 이동식 샤워의자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균형감각이 떨어지는 노인의 신체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샤워기는 고정식보다는 이동식으로 하여 사용자의 신체적 조건에 따라 융통적으로 사용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2) 욕실의 주요 색채

노인들이 선호하는 욕실의 주요 색채는 W(50.8%)가 가장 많았고 R(10.0%)을 선호하는 노인이 약간 있었다<표 19>.

표 19. 욕실의 실내색채에 대한 노인선호 (N=120)

색	W	R	YR	Y	GY	G	BG	B	PB	P	RP	Gray
f	61	12	2	7	2	5	0	5	9	5	10	2
%	50.8	10.0	1.7	5.8	1.7	4.2	0	4.2	7.5	4.2	8.3	1.7

(3) 욕실 벽과 바닥 마감재의 종류와 문양

욕실의 바닥 마감재로는 타일을 79.2%의 노인이 선호하였으며, 14.2%는 대리석을 선호하였다<표 20>.

욕실의 벽 마감재 문양으로 조사대상 노인의 35.8%가

16) 홍이경(2003), 전게서, 99

표 20. 욕실의 벽과 바닥 마감재에 대한 노인선호

욕실 마감재	구분	f(%)
바닥 마감재 종류	나무(원목)마루	8(6.7)
	대리석	17(14.2)
	타일	95(79.2)
	기타	0(0)
	계	120(100.0)
벽 마감재 문양	줄무늬	28(23.3)
	꽃/식물	10(8.3)
	기하학무늬	16(13.3)
	한국전통무늬	11(9.2)
	추상적무늬	12(10.0)
	무늬없는 단색	43(35.8)
	계	120(100.0)

무늬없는 단색을 선호하였고, 23.3%는 줄무늬를, 13.3%는 기하학 무늬를 선호하였다.

I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조사결과를 종합하고 이를 토대로 노인을 위한 주거공간의 실별 실내디자인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이 선호하는 거실의 실내디자인 특성은 전통적 스타일보다는 전통과 현대가 혼합된 스타일, 또는 현대스타일의 실내이미지를 더 선호하였고, 전반적으로 붉은 계열의 색채를 선호하였으며, 꽃/식물이나 줄무늬 문양의 벽 마감재와 나무마루 바닥 마감재를 선호하였다. 또한 조명으로는 샹들리에 외에 천정등, 브래킷, 건축화조명, 다운라이트도 선호하였다.

따라서 노인 주거공간의 거실은 전통적이기보다는 전통과 현대가 혼합된 실내이미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실의 전반적인 색채는 난색인 붉은 색 계통으로 하고, 벽에는 꽃이나 식물 또는 줄무늬 문양의 마감재를 사용하며, 바닥은 나무마루 바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조명은 샹들리에와 천정등, 브래킷, 건축화 조명, 다운라이트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노인이 선호하는 안방은 전통과 현대가 혼합된 실내스타일이었으며 전반적으로 붉은 계열이거나 보라색 계열의 안방이었다. 또한 꽃/식물과 줄무늬 문양의 벽 마감과 나무마루 또는 장판으로 마감된 바닥에, 천정등과 테이블스탠드 조명이 설치된 안방을 선호하였다.

따라서 노인을 위한 주거공간의 안방은 전통과 현대가 혼합된 스타일의 실내이미지로 하고, 붉은 계열이나 보라색 계열로 하며, 벽에는 꽃이나 식물 또는 줄무늬 문양의 마감재를 사용하고, 바닥은 나무마루나 장판으로 하며, 천정등이나 테이블스탠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노인이 선호하는 주거공간의 부엌은 LDK형에 작업대가 ㄱ자형으로 배치된 부엌으로 전반적으로 흰색으로 되어 있으며, 벽에는 무늬없는 단색이나 줄무늬 마감재를 사용하고, 바닥은 나무마루로 마감한 부엌이었다.

따라서 노인을 위한 주거공간의 부엌은 동선을 단축시켜 주어 효율적이며 다른 가족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용이하게 해주는 LDK형으로 평면계획을 하고 작업대도 공간이용이나 작업자 측면 모두에서 효율적인 ㄱ자형으로 배치하며 벽에는 흰색 단색을 사용하거나 약간의 줄무늬를 사용하여 전반적으로 흰색으로 마감하고 마루바닥으로 마감처리하는 것이 노인의 선호를 반영한 부엌의 실내디자인이라고 본다.

넷째, 노인이 선호하는 욕실의 실내디자인 특성은 욕조와 샤워부스가 모두 있는 유형이고 전체적으로 흰색분위기가 나며 무늬없는 흰색의 벽 마감재와 타일 마감을 한 바닥을 사용한 욕실이었다.

따라서 노인을 위한 주거공간의 욕실은 욕조와 샤워부스를 모두 설치하되 샤워부스에는 샤워용 의자를 배치하고 이동식 샤워기를 사용하며 벽에는 무늬없는 단색을 사용하고 바닥에는 타일을 사용하되 전체 색상은 흰색계열이 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은 새로운 스타일의 인테리어가 등장하여도 이를 적극 수용하기보다는 이제까지 이어져 온 전통적인 스타일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변화와 수용을 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중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이를 통해 노년층과 중년층의 선호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 한정하여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진행된 것이므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며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여 진행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내이미지 관련 시각도구는 본 연구자들이 작성한 것이므로 표준화된 도구가 아니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 조사대상인 노인이 선호하는 실내이미지을 선택할 때 연구자가 의도한 것과는 달리 이미지 보드에 나타난 색상, 가구, 마감재, 조명 등의 다른 요인에 의해 선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고려되어져야 하며 실내스타일의 유형분류를 표준화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1. 김남효(2003), 주택주방의 리모델링 선호요인 및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38, 250-257.
2. 김수남, 박영호, 최창환(2005), 부산시 인구고령화의 공간적 분포와 특성, 한국도시행정학회논문집, 18(3), 23-48.
3. 연세대학교 이연숙교수연구실(1997), 실내이미지 선호판별도구, 기문당.
4. 이숙향(1999), 고양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거주자의 실내디자인 선호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5. 전은정, 조성희(2006), 노인수요계층의 아파트 실내 색채계획을 위한 색채선호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5(6), 221-228.

6. 홍이경(2003), 한국형 노인공동생활주택의 실내디자인 선호경향과 지침 연구, 경희대 박사논문.
7. 홍이경, 오혜경(2005), 예비노인층의 공동생활주택 실내마감재 및 색채에 대한 선호,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4(5), 167-176.
8. 2007년 부산시 주민등록인구통계.
9. I.R.I.컬러시스템, http://www.iricolor.com

접수일(2009. 9. 13)
수정일(1차: 2009. 10. 17)
게재확정일자(2009. 11. 3)